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지원정책,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이원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 위원, 문화연대 사무처장

1. 다원예술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진화를 기대하며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출범과 함께 다원예술 분야는 다원예술소위원회(이하 다원소위) 구성 등을 통해 지원정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 설정되었으며,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와 거점을 마련하였음

(2) 지난 3년간 다원소위는 예술정책의 지원대상으로서 다원예술을 정의내리고, 다원예술을 둘러싼 정책적, 미학적 담론화를 모색하였으며, 실질적인 다원예술 현장에 대한 지원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3) 현재 예술위 1기 임기가 마무리되고 2기가 출범하면서 다원예술 지원정책 역시 행정구조, 지원목적 및 방향 등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됨.

그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로 할지라도 지난 3년간 진행된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성과 및 한계 속에서, 지원정책의 발전 과정을 둘러싼 맥락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

(4) 이제 예술위 2기는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기간 지원사업에 의해 형성된 다원예술 현장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적절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식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중요한 지원정책 과제(지원정책의 선택)를 도출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함

2. 현 시기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중요성

(1) 현재 한국 사회의 배타적 장르주의, 그리고 이에 기반한 예술정책 속에서 다원예술은 그 존재감, 정체성만으로 예술 생태계 및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

(2)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원예술은 예술정책의 개념적 규정, 지원대상 범주 설정 등의 문제를 넘어 이미 다양한 예술 발전에 있어 기초적 토대이자 주체 형성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음 : 물론 이론적으로는 모든 예술이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 세대성 등을 내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원예술 영역에서 발현되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음

- 새로운 예술
- 차세대 예술가
- 예술 생태계의 종 다양성 : 예술영역의 사회적 확장
- 예술, 예술정책의 탈형식주의 : 관성화된 예술, 예술정책에 대한 도전
- 예술의 사회적 관계성(공공성) 또는 사회적 실천

(3) 현재 한국 사회의 예술 환경에 있어 다원예술은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수 영역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으로는 사회 변화 속에서 주요한 흐름으로 역할하고 있음

- 예술가들의 미학적 경향성
- 예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수요
- 국가 문화정책과 예술 콘텐츠의 관계성 : 문화교육, 공공예술, 커뮤니티 아트 등
- 사회적 감수성의 변화, 예술을 둘러싼 문화 리더십 증대 등

(4) 예술 지원정책이 발달한 해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배타적 장르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목적지향적인 예술 지원정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정책 방향 설정, 행정(지원사업) 구조의 개혁이 시급함

- 예술위를 비롯하여 지역문화예술 지원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원예술 지원정책은 향후 주목해야 할 영역
- 다원예술은 단순한 장르, 현장 등을 넘어 새로운 예술 지원정책 방향 설정, 행정(지원사업) 구조 전환 등에 있어 중요한 층위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미 현실적으로 다양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주요 성과¹⁾

(1)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

지난 3년간 예술위 다원소위는 다원예술 분야 및 다원예술 지원정책이 구성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기본 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목했음. 이러한 맥락에서 다원예술의 개념 설정 및 사회적 공유, 다원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 및 현황 파악,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기본 구성 요소 확충 등에 집중하였음

- 다원예술위원회 운영 활성화
- 다원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이의 다원예술 지원정책 협의 구조 강화
- 정기공모사업 등 기초 지원사업 구조의 문제점 개선 및 안정화 모색
- 다원예술 현장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및 소통 확대
- 다원예술 지원정책 관련 증장기, 단기 개선 방안 수립

1) 지난 3년간 진행된 예술위 다원소위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다원예술 지원정책 현장 수요 연구 보고서>(김소연·김준기·이원재·이진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4), <다원예술소위원회 1기 평가보고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 2006), <다원예술소위원회 2·3기 평가보고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 2008) 참조

(2)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다양성 확보

예술위 다원소위의 지원정책은 지금까지 축적된 다원예술 지원정책 구조에 안주하기보다는 지원정책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다원예술의 사회적 의미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다각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기획사업을 통한 다원예술 지원정책 구조의 다각화
- 다원예술 매개공간 등 지원정책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원구조 다원화
- 정기공모사업 전반에 걸쳐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다양성 확보
- 다원예술 현장 내부의 실험성, 다양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구조 확보

(3)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전문성 강화

예술위 다원소위의 운영이 2년차, 3년차에 들어서면서 다원소위는 다원예술 지원정책 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질적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다원예술 지원정책을 둘러싼 지속적인 연구 추진
- 다원예술 지원정책 관련 토론, 포럼 등 활성화
- 다원예술 지원기관 사이의 일상적인 정보공유 및 상호보완적인 지원환경 구축
- 다원예술 현장의 변화, 진화에 따른 다층적인 지원정책 수립

(4) 다원예술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

예술위 다원소위는 새롭게 형성되어 온 다원예술 현장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 예술가 및 단체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음. 무엇보다 다원소위는 다원소위 운영,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수립집행 등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모든 과정에 있어 다원예술 현장 예술가들의 소통과 참여가 일상화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했음

- 다원소위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장 예술가, 단체의 참여 확대
- 다원예술 지원정책과 다원예술 현장간의 소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 다원예술 매개공간 구축
- 다원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추진
- 월레포럼, 토론회, 사업설명회 등 다원예술 지원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운영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주요 과제

(1) 다원예술에 대한 이해 확대

- 현 시기 예술정책에 있어 다원예술의 중요성
- 예술적 층위로서의 횡단성
- 예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으로서의 다원예술
- 기간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성과, 그리고 지속 필요성

(2) 다원예술을 둘러싼 지원정책(예술행정)의 구체화

- 다원예술의 현장에 대한 이해 심화 및 다층적 범주화
- 국가 단위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중장기 비전, 로드맵 구성
- 다원예술을 둘러싼 지원구조(지원사업) 정비 및 다각화

(3) 다원예술 기초 인프라 조성

- 기금지원 수준을 넘어 환경조성 정책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다원예술 관련 예산 확충, (가칭)다원예술지원센터, 다원예술 아카이브, 기타 다원예술 창작 및 공유 인프라 확충 등

(4) 지역내 다원예술 활성화

- 수도권을 넘어 지역문화의 맥락에서 다원예술 지원정책 활성화

(5) 다원예술 지원정책 연구 및 개발 활성화

- 지원정책 다각화
- 심화된, 발전된 지원정책 연구 및 개발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주요 개선방안 제언

(1) 다원소위 운영

○ 기간 예술위 다원소위는 지난 임기 동안 예술위 내부에서 소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기간 다원소위는 지원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획사업을 능동적으로 기획, 집행하였음

○ 하지만 기간 예술위 소위원회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환경이 가지는 집행력의 한계 등은 다원소위 활동에 있어서도 명백한 문제점으로 작용하였음

○ 예술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다원소위 1기와 2·3기 사이의 시간적 공백이 발생한 점, 예술위와 개별 소위원회 사이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어려웠던 점, 다원소위가 그 동안 생산하고 제안해 온 다양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이 예술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다는 점 등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함

[제언 사항]

❶ 현장 참여 확대

○ 적극적인 공개 추천 및 인선 과정을 채택함으로써, 지원정책체계의 구성 과정부터 현장의 더 많은 참여와 민주주의를 모색

- 소위원회 회의록, 각종 포럼 자료 등을 쉽고 자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창구 마련

② 소위원회 활동 범위와 역할 구체화

○ 예술위 운영구조에 있어 소위원회의 위상 및 활동 형식 구체화

- (예시) 정책자문 단위, 정책기획 단위(정책연구 및 기획 등), 정책기반조성 단위, 현장네트워크 등 구체적인 위상 및 활동 형식에 대한 합의 필요

○ 설정된 활동 범위와 정체성에 기반하여 중장기 지원사업 목표 수립

○ 예술위 - 사무처 - (다원예술)소위원회 간의 연계성을 일상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소통체계 마련 : 형식화된 보고체계를 넘어 지원사업별 기획 및 집행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 필요

③ 소위원회 위원들의 역할 분담 구체화를 통한 집행력 제고

○ 위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소위 활동의 효율성 제고

- (예시) 정책 기획 및 연구, 현장 네트워킹, 기획사업 운영 및 발굴, 대외사업 등으로 역할 세분화하여 진행

④ 소위원회 위원들의 대외 활동 강화

○ 다원예술 분야의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다원예술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매개할 수 있는 대외활동 활성화

○ 기금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지원환경 조성이라 할 수 있음

○ 공공기관, 기업, 미디어 등과 관련하여 기획사업 추진

○ 다원예술 지원과 관련하여 외부 주체와의 연계사업, 기획사업 활성화

(2) 다원예술 현장과의 소통

○ 기간 다원소위는 무엇보다 다원예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했으며, 소통의 거점 공간으로서 다원예술 매개공간 확보, 다양하고 지속적인 포럼 및 토론회를 통한 현장과의 소통 노력, 지원정책을 둘러싼 현장 수요 조사연구 등은 중요한 성과임

○ 지원기관과 현장 예술가의 소통과 공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더욱이 현장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과 집행력 속에서 언제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다원소위 역시 제한된 구조 속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 최근 다원예술 분야가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예술위의 다원소위는 현장과의 더 많은, 더 다양한 소통을 위해 고민하고,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다원예술 지원정책을 둘러싼 소통은 여전히 서울,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내 다원예술 현장 및 잠재력에 대한 대안이 매우 부족한 상황

[제안 사항]

① 현장과의 의사소통, 정보공유 등을 위한 시스템 보완

○ 다원예술 현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원예술소위원회 차원의 메일링리스트(뉴스그룹) 개설 및 운영

○ 다원소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

○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세스 구축

2 컨설팅 창구 개설

- 신진 예술가 등 현장 예술가들이 편하게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 창구 개설
- 컨설팅과 관련하여 상설적인 온라인 창구 개설
-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 운영

3 정책 포럼의 안정화와 활성화

- 다원예술을 둘러싼 이론, 정책, 행정 등과 관련하여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정책포럼 안정화, 활성화
- 정책 전문가, 정책 담론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주제 발굴
- 정책의 전달만이 아니라 현장과의 정책 공유, 의견 수렴 등의 기능 강화

4 '다원예술 관련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다원예술에 대한 홍보와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배포
- 현장 주체간의 소통과 네트워킹을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 : 다원예술 주체 관련 정보, 다원예술 지원사업 관련 정보 등 포함

5 다원예술 매개공간 활성화

-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수렴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활성화

6 정기공모사업 낙선자 포럼의 상설화

(3) 다원예술 지원정책 환경 조성

○ 새로운 공공예술 지원사업, 다원예술 매개공간 운영 등 적극적인 기획사업 추진은 다원소위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음.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다각화, 다원예술 지원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실험 등 중장기적으로 예술위의 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원예술 매개공간은 장기적으로 (가칭)다원예술지원센터 등의 다원예술 지원정책 환경 조성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물리적인 공간의 측면만이 아니라 새로운 지원정책 환경을 실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매개사업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새로운 공공예술 지원사업, 다원예술 매개공간 추진사업의 초기 과정에서 드러난 기획사업의 구체성 부족, 현장과의 체계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미흡 등은 다원소위 집행력의 한계였음. 기획사업의 추진에 있어 더 많은 고민, 연구, 구체성 및 집행력 확보 등이 개선되어야 함

○ 지원정책 환경 조성이 아직 초기에 가깝고 무엇보다도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다원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예술위 차원에서 다원소위를 중심으로 다원예술 기반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제안 사항]

① 다원예술 분야 기금 지원 확대

- 예술위 전체 예산에서 다원예술 분야의 예산 비율이 확대되어야 함
- 현재 다원예술 분야의 예산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부족 : 예술위 내부의 형평성을 고려할지라도 상당부분 상향 조정되어야 함
- 다원예술의 사회적 중요성, 다원예술과 타 장르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다면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

②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다원예술 지원정책 현장 수요 연구 보고서> 등 그동안 진행된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추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집행

- 이를 통해 다원예술정책의 구체성 및 지속성 확보
- 다원예술 현황 파악 조사연구, 다원예술 지원효과 연구, (가칭)다원예술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 등

③ 다원예술 아카이브 구축

-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다원예술 아카이브 구축 추진
 - 아카이브 구축은 다원예술 관련 다양한 현장 주체들에게 지속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창작 지원 인프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임
-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다원예술 매개공간 연계, (가칭)다원예술지원센터내 아카이브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④ 다원예술 분야 비평 활성화

- 다원예술을 사회적으로 의미화하고 소통시킬 수 있는 비평 분야의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함
- 다원예술 관련 비평저널 발행

⑤ 통합적 다원예술 진흥체계 수입을 위한 정보공유, 기획 조정 활성화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기획조정 등 활성화
- 국가 단위 다원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중장기 지원정책 개발, 불필요한 중복 사업 점검, 사업 효율성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다원예술 지원정책 관련 단위들과 간담회, 포럼 등 운영

(4) 다원예술 지원사업 제도 개선²⁾

- 지난 3년간 예술위 다원소위는 기존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황임. 이는 중장기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단기 개선과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정책 흐름 속에서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발전 경로를 제시하고 있음
- 다원소위가 다양한 정책 포럼 및 토론회, 외부 지원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의, 지원정책 관련 현장

2) 다원예술 지원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원예술 지원정책 현장 수요 연구 보고서>(김소연·김준기·이원재·이진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4) 참조

수요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지원정책 개선방안들은 향후 다원예술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원소위가 제시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예술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구조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예술위 2기는 기존 지원정책의 성과 및 연구 결과를 심도 깊게 검토 및 평가하여, 향후 다원예술 지원정책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안 사항]

① 정책 영역 및 대상의 구체화

- 지원연도별, 사업별로 지원정책 방향 제시
- 정책 영역 및 대상 설정에 대한 다층적 범주화
- 다층적 범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 사업 진행

② 사용자 중심 지원환경 확보 : 지원제도의 다면화 및 간소화

- 연속사업 지원
- 다년 지원사업(3개년 연속 지원 사업) 도입
- 다원예술 주요 단체 지원사업 실시
- 사업의 성격과 취지에 따라 사업 보고 방식의 다각화 추진

③ 공모, 심의, 평가제도 개선

- 계기성 지원사업의 보완, 활성화를 통한 상시 지원제도 활성화
- 심의 과정에서 인터뷰 활성화, 인터뷰 형식 다각화(포트폴리오 다변화, 다양화 등)
- 실질적인 심의위원 풀 제도 운영
- 형식적인 장르, 지역 안배를 지양하고 지원정책 목적과 방향에 기반한 심의 유도
- 심의 기준 및 결과에 대한 현장 소통,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 지원 방향성 등 공유
- 예술위 지원사업 전체에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 필요
- 현장 평가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관점의 접근(현장 평가의 목적 및 기능 명료화) 필요

④ 지원사업의 다각화

- 상시 컨설팅 센터 및 인력 지원 시스템 운영
- 예술가 상호 간의 네트워킹 협력
-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홍보 활성화
- 외부 기관, 기업 등과 개별 아티스트의 연계 지원
- 기금 지원 이외의 인력, 정보 등 지원 정책 활성화
-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메세나협회의,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등 유관 기관 사이의 협력 강화

다원예술지원정책의 미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란다!

채은영 (독립큐레이터)

미리 변명하자면, 필자는 다원예술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없다. 아니 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왜냐면, 예술 행정과 정책에 대한 지원 정책은 국가자본에 의한, 추상적 평등이란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칭 기금 지원서의 전문가(?)로 불리기도 했던 지난 과거를 반성(?)하면서 생각들이 있다. 하나는 지원 정책은 공공 기금이라도 있어야 기획과 작업의 최소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예술가에게 주식의 데이 트레이딩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점을 놓치지 않는 자기계발의 시점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내용이 다양한 예술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건강한 가치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보다는, 심사에 대한 성토나 열악한 예술창작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으로 집중되어 예술가 자체의 사회적 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다는 것 이다. 그 부분에서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상업 자본 만큼 내밀화 되어 있는 국가 자본에 의한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객관적 거리두기가 가능할까 라는 지점이다. 그런 이유로 덜컥 수락해놓은 토론회 발제 원고의 제목을 끌어 안고 며칠째 뒷목만 당기고 있다.

다원예술소위원회에서는 올해에만 3차례의 토론회가 있었고, 다원예술 지원 정책에 관한 현장 수요 연구 보고서를 발행했다. 소위원들의 불타는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지점이다. 이미 적지않은 고민과 토론을 거친 연구가 있었다. 스스로 다원예술계에 속한 것일까 하는 정체성의 고민을 이제 막 시작한 필자가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논하는 것은 심하게 오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적이거나 전문적 견해를 피력해 주실 분들이 많은 것이라 기대하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려 하는 그 지점과 독립큐레이터로서 생존 2년 차 징크스를 겪고 난 상황을 연결지어 3가지 방향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다원예술소위원회 활동 관련 : 공부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다원예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활동은 다원예술이 갖는 가능성을 확인한 단계 였을 뿐이며, 이제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기반으로 서 다원예술소위원회의 불타는 책임감은 계속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³⁾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동시대적 다원예술의 현장과 비평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지원 정책의 계획과 실천을 통해 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은 다원예술에 대한 비평적 기반이 취약한 것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제까지의 정책이나 수요 연구 조사등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거칠게 표현하자면, 다원 예술에 대한 일반 정책을 위한 연구와 토론이 아니라, 실제 다원 예술에 관한 이해와 비평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잡아 갈 수 있는 소위원회의 역량강화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그러하지만, 다원예술관련한 공식, 비공식 토론의 자리에선 여전히 익숙한 장르가 아니면 토론 자체가 일반적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전히 한 두가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다원예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쉽고 편하게 받아 들여 동시대 예술가로서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필자는 이러한 각각의 맨과위가 위원회 내의 다원예술소위의 위상을 강화시킬뿐만 아니라, 좀더 생산적인 지원 정책의 계획과 수립이 가능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하니 새로 소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실 분들은 남들 다 알고 있는 것이나 매번 같은 결론의 연구나 토론은 이제 그만하시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공부하시고 행동하시길..

직접 지원 사업 관련 : 할 건 할 테니 좀 심플하게 합시다!

현재까지의 다원예술분야의 지원사업에서 정기 공모를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을 편의상 직접 지원 사업으로 보고 이야기하겠다. 예술가들이 지원만 받고 정산이나 그 외 과정에 대해 이런 저런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모.. 그것도 지원을 받는다면, 국민의 세금을 받아 쓰는 공공적 사명감을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 싶다. 어느 부분에선 일부 예술가들이 공공기금의 지원을 당연시하는 것 만큼 사회적 책임으로써 그 계획의 실행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갖고 있진 않은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예술가들은 상업 자본에 대한 비판은 예리하면서도 정작 국가 자본에 대한 비판의 긴장감은 느슨하다. 우리가 지원 받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은 일정 부분 당대 문화예술정책의 성과로 쓰여질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원 사업에 신청하거나 참여할 때 드는 생각은 무척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일단 신청할 때를 생각해보자.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추상적이고 복잡하다. 솔

3) 베르나르는 문화다양성을 투쟁에서 생겨나는 운동의 의미를 가진 다양한, 생물 다양성이나 자신과의 이중 투쟁속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적인, 정적이거나 계량 가능하지 않아 양가적이고 모순성을 강조해야 하는 역동적인, 정치 사회 교육 경제적 응답으로, 이론적 법적 정치적 기획으로서 재정의한다.

프랑수아 드 베르나르, 문화 다양성 개념의 재정립을 위하여, 세계화 시대의 문화논리, 한울

직히 다른 분야의 설명에 갖다 놓아도 어울릴 것 같다. 다원예술의 경우 장르, 활동, 과정 등이 다양하고 복합적인데 반해, 일반 신청서 서류는 지나치게 행정데이터베이스의 항목 분류에 치우쳐있어서 대체 어디에다 체크를 해야하는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한다. 왜냐면, 항목이나 분류 체크에 따라 심사분류가 결정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원예술에 대한 기초연구가 아직 전문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수도 있다. 쉽게 말하자면 새로운, 다른 예술인 다원예술의 지원 신청이나 과정은 여전히 이전 방식 그대로 라는 것이다. 매년 여러 개의 제출 서류나 관련 증빙 자료를 내는 것이 무척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좀 더 분명한 지원 가이드 라인은 밤 세워 기획서를 다듬고 자료를 만드는 예술가들에게 결과 발표 후, 헛수고 했다는 박탈감을 주지 않을 최소한의 태도가 아닐까 싶다.

심사 과정 역시 기존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다원예술의 다양한 가치들을 이해하거나 심사 결과에 따른 합의를 만들어 내기엔 부족하다. 지원 신청 예술가 스스로에게도 해당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인터뷰를 비롯한 다양한 심사 방식을 만들어야 도입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자질에 관한 부분은 소위원회 전문성과 다양성 문제와 연결된다.

지원 확정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피드백을 통해 심사와 현장간의 간극을 좁혀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다년간 지원 프로젝트를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지원 확정된 프로젝트의 진행과 결과를 점검하여 이후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예술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기획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심사하여 향후 지원을 모색해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간접 지원 사업 관련 : 자나깨나 AS 정신

마케팅 용어 중에 고객만족(CS: Customer Satisfaction)이란 개념이 있는데 관련된 업무를 하던 사람들 사이에선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발광을 위해~ 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곤 했다. 굳이 마케팅 용어까지 들먹이는건, 다원예술매개공간의 운영과, 관련 자료에 드러난 여러 간접지원 사업이 실제로 다원예술계(?)의 다원예술가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넘어선 활동과 담론의 방향을 제시할만 하는가 이다. 몇차례 토론회에서 느끼는 어떤 부분은 다원예술계라기보다는 짐작 가능한 몇몇 단체, 예술가들에 집중된 인상을 갖는 것이 필자의 무지에 의한 판단이길 바란다.

다원예술의 간접 지원은 공공 기금이라는 실질적인 자본의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 예술가들

의 최소한 기반을 지원하거나, 개별 단체나 예술가가 할 수 없는 주요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을 통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다원예술소위에서 대표적 간접지원 방식은 다원예술매개공간의 활동은 일정 부분 의미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다. 필자의 단편적인 경험으로 다원예술매개공간의 활동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왜 애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지점을 생각해보면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을 듯 하다. 먼저, 초기에 공간 운영에 대한 방향이나 구체성이 어느 정도 었는지는 몰라도 실제 많은 불편함이 따랐다. 공연 중심의 공간 구성과 불편한 탁자 등은 평일 낮에 누군가와 차 한잔을 하며 이야기하거나, 회의를 하기엔 불편하고 어중간한 분위기였다. 그 이후로는 계속 좁은 작업실이나 카페를 전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 기본 자료를 조사할 때, 아직까지 이렇다할 다원예술관련 아카이브나 시청각 자료등을 볼 수 없는 것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인사미술공간이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아카이브와 워크숍, 출판, 전시, 공연 등으로 많은 작가, 큐레이터, 학생들이 주목하고 이용하는 것을 참고해볼 만 하겠다. 왜 같은 위원회 소속 지원 기관인데,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고 있지 않은 걸까. 여전히 매개라는 부분은 그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에만 해당되는 듯 하고, 몇몇 토론회의 경우에는 기존 분과 위원회의 토론회나 관련 행사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구성과 진행을 볼 수 있었다.

필자는 다원예술매개공간이 스스로 많은 일들을 만들어 내기 보다는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간접지원을 위한 운영에 좀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 그러한 가운데 스스로 어떤 매개역할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평이 어려운 가운데 애써 일하는 스텝들의 사기를 꺾자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애써 밝히면서도, 다원예술매개공간과 앞으로의 간접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재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야하게 말하면, 다원예술매개공간이나 소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다원예술가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시란 부탁이다.

며칠 동안 고민의 흔적이라기엔 문화예술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너무 소박해서 실망스러울수도 있겠지 싶다. 2기 문화예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가장 바라는 것은 기본 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일 것이다. 지원 정책의 대상인 예술가들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라고 짐짓 오픈 마인드를 자랑하며, 논의 과정의 들러리로 세울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누군가가 정치에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듯이, 필자 역시 지원 정책에 큰 희망을 갖고 있진 않다. 희망을 갖기엔 이미 순진하지 않은 독립큐레이터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의 건강한 가치가 우리 삶과 함께 하길 상상하고 실천하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을 의욕마저 꺾거나, 소모적 대결을 하게 하거나, 스스로가 비문화적이 되게 하진 말아 달라는 것이다.